

농촌진흥청, '다용도 염소 보정틀' 개발·사육 효율 높인다.

- 바퀴 장착 이동 쉽고, 가축 안정적으로 고정
- 가축 스트레스 최소화하고, 작업자 안전 보장·노동력 절감 기대

농촌진흥청(청장 권재한)은 염소 사육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'다용도 염소 보정틀'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

다용도 염소 보정틀은 가축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움직임을 제한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다.

염소 거세, 발굽 관리, 수술, 백신접종(약물 투여) 등 필수 작업을 할 때 동작이 민첩한 염소를 안정적으로 보정해 작업자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.

또한, 바퀴를 장착해 이동하기 쉽게 했고, 긴 작업 시간 동안 염소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가슴과 배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설치했다.

아울러 작업 목적에 따라 염소 신체 부위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향상되고, 인력 소모를 줄이는 등 기능적 장점을 갖췄다. 가축 복지 차원에서 염소를 뒤집거나 눕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.

작업자는 염소를 틀에 넣고 머리를 고정한 뒤, 작업 목적에 따라 신체 부위를 고정한다. 수컷 중성화 작업을 할 때는 뒷다리를 고정하고, 발굽 관리나 진료할 때는 발굽을 장치에 고정하면 편리하다.

난산 처치 또는 수술할 때는 가슴과 배를 받쳐 흉부를 안정적으로 고정한 후, 측면 틀(프레임)을 제거하면 원활하게 수술할 수 있다.

농촌진흥청은 다용도 염소 보정틀로 지난해 특허출원*을 완료했다. 아울러 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완료해 원하는 농가는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.

*출원번호: 다용도 가축 보정틀(10-2024-0177040)

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“다용도 염소 보정틀은 염소 사육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.”라며 “가축과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, 가축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다용도 염소 보정틀 사진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한만희 (055-960-3510)
		담당자	연구사	하승민 (055-960-3532)
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**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**

